中, 티베트 사찰 신규 출가 금지명령 '논란'

총림인 큥붐루라 사원에
연령 불문 출가 등록금지
당국서 관리자 파견까지
사찰 쇠퇴…폐사 우려도

박영빈 객원기자


최근 신규 출가자 입산이 금지된 큥붐루라 사원 전경. 사진출처=자유아시아방송

중국 당국이 최근 한 티베트 불교 사찰에 신규 출가자의 입산과 승적등록을 금지시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월 3일 '자유 아시아 방송(RFA)'은 티베트 자치구의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자세한 정황을 보도했다.

RFA 측은 "중국 당국이 티베트에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출가하여 입산하는 것에 대한 제한조치를 내린 적은 있었지만, 모든 연령에 대해 출가자의 입산과 승적등록을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현지 소식통의 제보를 인용하여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지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동부 티베트 참도에 있는 티베트 불교 사찰에 새로운 출가자를 받지 말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받은 사찰은 마르캄 지구에 있는 큥붐루라 사원"이라고 말했다.

RFA는 큥붐루라 사원은 동부 티베트 지역에서 중요한 총림사찰 중 하나로 달라이라마가 이끄는 종단인 겔룩파에 소속돼 있으며, 현재 80명 이상의 비구스님들이 상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원은 1950년대 티베트로 침공한 중국군에 의해 대부분 파괴됐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 종교활동이 인정받으며 현지 티베트인들과 스님들의 노력으로 일부 복원된 것으로 전했다. 현지 소식통은 "50년대에 중국군이 침공할 당시 현지 티베트인들과 스님들은 6년 넘게 침공에 저항했다. 이런 내력으로 인해 복원이 허락된 후로도 감시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재 티베트 자치구와 자치현 지역에서의 종교활동은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이 시행하는 〈종교사무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다. 당국은 최근 이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왔으며, 규정에 따르면 티베트의 모든 국공립학교나 교육기관에서는 어떤 종교활동도 할 수 없고, 18세가 되기 전에 사찰에 승적을 올리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스님들의 자치로 운영되던 현재 큥붐루라 사원을 감독하기 위해 당국은 현지에 관리자를 임명하여 파견했으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찰을 폐쇄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했다. 현지 소식통은 "마르캄 지구의 티베트 주민들은 새로운 출가자가 입산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명령에 큰 우려를 비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조치는 결국 사찰의 쇠퇴를 불러 폐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며 "불교문화가 생활에 다양하게 녹아있는 현지 티베트인들에게 있어 지역의 중요한 불교 의례기간 동안 이를 주재할 사찰이 없어짐과 동시에, 관혼상제에 대한 모든 종교적인 예식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 모두가 명령이 미칠 악영향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고 지역 내부의 반응을 전했다.

중국 당국은 전통적으로 티베트 문화와 국가 정체성의 중심지였던 티베트 불교 사원의 규모와 영향력을 오랫동안 제한하려고 노력해 왔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15세 미만의 출가자들에 대한 귀가 혹은 환속조치를 실시해 왔다. 또한 2021년 1월 국가 종교사무국이 채택한 공산당의 '종교 성직자에 대한 관리 조치' 규정에 따라 종교는 중국 사회주의 사회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불교 영화 삼사라, 영국 전역서 개봉

불교 '윤회' 다룬 파티뇨 감독 영화
베를린국제영화제 특별상 수상작


불교 영화 '삼사라' 한 장면.

지난해 국내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선정작이었던 로이스 파티뇨 감독의 영화 '삼사라'(Samsara)가 영국 전역에서 상영된다.

1월 9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보도에 따르면 불교 영화 '삼사라'가 오는 1월 26일부터 영국 전역의 영화관에서 상영될 계획이다.

불교 용어인 '삼사라'는 삶과 죽음의 반복, 즉 윤회(輪廻)를 의미한다.

영화 삼사라는 1·2부로 나뉘는데, 1부에서는 동물로 환생하고 싶은 '몬'(Mon)이라는 이름의 할머니가 병들어 죽은 후 중간계를 거쳐 2부에서 염소 네마로 탄생한다. 몬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영화에는 관객들에게 '눈을 감고 그녀와 함께 내세를 여행하라'는 자막이 등장한다. 이윽고 15분의 막간이 있다.

감독은 이를 생(生)과 사(死)의 중간에 있는 티베트 불교 용어인 '바르도'로 표현한다. 눈 감아도 인지되는 섬광의 연속과 청각적 자극을 통해 사후세계로의 여정을 구현한 것이다.

가디언은 이 중간계에 대해 "눈을 감고 '본다'"며 "삼사라의 내세 막간 화면은 밝게 번쩍이는 여러 가지 빛깔의 빛과 들어오고 나가는 소리로 가득 차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평가했다. 감독은 "나는 명상적인 영화를 항상 탐구해 왔다. 성찰적이면서도 명상할 수 있는 영화를 제작하고 싶었다"며 "갑자기 눈을 감고도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2부가 시작되면서 관객들은 1부 장면의 반대편으로 나와 밝고 푸른 바다가 보이는 잔지바르 해안에 사는 가족을 만난다. 가족들은 아기 염소 '네마'를 보며 행복해 한다. 염소 네마가 할머니의 환생일 것이라고 추측케 하는 대사도 등장한다.

삼사라는 앞서 지난해 10월 런던영화제에서 초연됐다. 아울러 지난해 4월 전주시네마프로젝트에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올해 베를린국제영화제 인카운터스 부문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다. 박정현 객원기자

스리랑카, 불교도·가톨릭 신자 함께 불탑 건립

종교 간 화합 · 조화 도모
성당서 인적 · 물적 지원도


스님들과 가톨릭 성직자들이 힘을 합쳐 불탑을 건립하는 현장. 사진출처=헤럴드 말레이시아

스리랑카에서 종교 간의 화합과 조화를 위한 움직임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1월 4일 말레이시아의 '헤럴드 말레이시아'는 가톨릭 성직자와 신자들의 도움으로 불탑이 건립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리랑카 북부 휴양지로 유명한 도시인 칼피티야(Kalpitiya)의 불교센터에 새롭게 건립 중인 불탑을 위해 현지의 가톨릭 성직자와 신자들이 나섰다. 지역의 평화와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해 건립되는 불탑을 위해 현지의 칼피티야 성당과 성당이 소속된 칠라우 교구는 인적·물적 지원을 불교계에 보내고 있다.

칼피티야 불교센터 주지 반디웨와 디야세나 스님은 "불탑 건립을 위해 불교와 연대해 주는 가톨릭 교회의 지원에 감사하다"면서 "칼피티야 성당의 주임신부인 삼패스 신부를 비롯해 다른 성직자분들과 칠라우 교구의 신자들은 종교 간의 화합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칼피티야 성당 주임신부인 삼패스 프라상가 페레라 신부는 "칼피티야는 불교, 힌두교, 가톨릭, 이슬람교 4개 종교의 신자들이 함께 모여 사는 지역"이라며 "우리는 모두 화합하고 협력하며 이 땅에서 살아간다. 종교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한 인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조화와 사랑을 경험하는 원인"이라며 불탑 건설 전에도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해 각 종교의 지도자들이 연대와 협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디야세나 스님은 "옛날 인도에서도 스리랑카 불교운동가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가 부다가야에 불교사원을 지으려고 했을 때 가톨릭 교회가 불교 공동체의 권리를 옹호해 줬다. 또 2019년 부활절 테러 사건 당시 싱할라족과 무슬림 사이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이슬람 지도자들이 중재에 나섰으며 불교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최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삼패스 신부의 설명을 보충했다. 스님과 삼패스 신부는 "이 나라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면 평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 화합하고 평화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행운"이라며 서로의 종교에서 말하는 평화의 메시지에 집중하자"고 했다. 삼패스 신부는 "두 종교 간의 우정을 보여주는 작은 예를 들자면 지금 탑을 짓는 데 전념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웃어 보였다. 박영빈 객원기자

스페인에 6천톤 거대 불상 조성된다

룸비니동산재단, 카세레스에 백옥 불상 건립 계획


스페인 카세레스 지역에 세워질 백옥 불상 조감도.

스페인의 한 작은 마을에 6000톤에 달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불상이 들어설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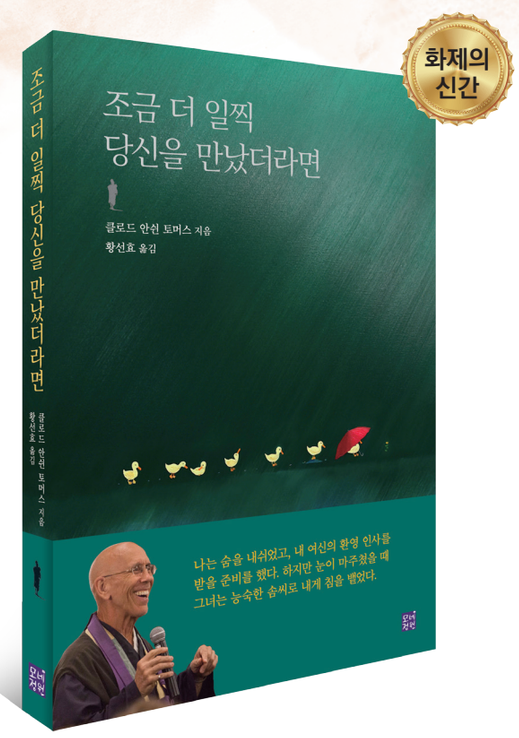
1월 5일 릴리젼뉴스에 따르면 룸비니동산재단 스페인 지부는 최근 카세레스 시내 인근에 최대 6000톤에 달하는 백옥 불상을 건립하려고 계획 중이다.

릴리젼뉴스는 "스페인 불교도들은 2022년 기준 인구가 9만5976명인 카세레스를 유럽 불교의 총본산으로 만들길 원하고 있다"며 "무종교인이 늘어나고 아시아 문화가 각광받는 최근 추세에서 불교로써 유럽과 아시아 간 이해를 촉진하고 동서양 간 문화 교류의 장을 만들고 싶어한다"고 보도했다.

공공기관인 사회학연구센터에 따르면 스페인 전체 인구 중 36%만이 자신이 가톨릭 신자라고 밝히고 있으며, 실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은 18%에 불과하다.

룸비니동산재단의 회장 호세 마누엘 빌라노바도 "불교는 신의 인도를 받지 않는 '철학'에 가깝기 때문에 스페인 젊은이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거대 불상을 제작하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일"이라고 기뻐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